



끝이 있는 국어  
유현주 국어

# < 2021 6월 모의평가 + 현주간지 적중내역 > EBS 연계 지문 100% 적중 [A++ ~ A] + 비연계 지문까지 적중!

모두 **A++ ~ A** 에서 적중되었고,  
현대소설은 **EBS에서 수록되지 않았던 부분** 이  
**현주간지 11주차에 수록된 부분**  
**전문이 그대로 출제** 되었습니다

---

고전시가: 정철 관동별곡 [적중도 A++]  
현주간지 13주차 수록 (EBS 비연계 적중)

현대시: 조지훈 산상의 노래 [적중도 A++]  
현주간지 23주차 수록, 12주차, 5주차 수록

고전소설: 전우치전 [적중도 A++]  
현주간지 20주차 수록, 17주차 수록

현대소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적중도 A]  
현주간지 11주차 수록  
(EBS 비수록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출제)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전소설 38~40번**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이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할사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늑홀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뜨스 일을 사로러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스나  
 어와 너여이고 너 가르니 또 잇는가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녑(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맺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사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면야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사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러 이셔  
 주야의 홀녀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스나  
 음에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스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어  
 외나모 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러니

- 정철, 『관동별곡』 -

[A]

\* 호의현상: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서호 넷 주인: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 동명: 동해 바다.  
 \* 음에에 이온 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 여산: 당나라 시인 이백(이적선)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진혈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 ④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3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봉우리를 '부용'을 꽃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 ②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 ③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④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⑤ '고갯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 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였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①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② '개심대'에서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  
**정철**

**현주간지 4월호 13주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늣뉘던고  
 ㉠ 노국(魯國) 조분 줄도 우리늣 모러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엇지하야 적뉘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락디 못허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ㄱ는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퉁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로  
 음애(陰崖)에 이우 풍운을  
 ㉣ 마하인  
 디어  
 외나모  
 [A] 천심(千心)이  
 은하수 한  
 실ㄱ티 플  
 도경(圖經) 열두  
 이적선(李謫仙)이  
 여산(廬山)이 여  
 산중을 미양 보라  
 ㉤ 남여(簾輿) 완보(完步)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흐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원  
 (怨)흐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  
 등성을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 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엇지 못  
 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  
 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

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멍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  
 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  
 싹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  
 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  
 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가  
 는 겨울 개

**현주간지 4월호 13주차**  
**55p 적중 !!**  
**EBS 비연계 작품도 적중 !!**

“하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  
 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부상 : 해가 뜨는 동쪽 바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 정철

현주간지 4월호 13주차

✓ 지문 분석의 끝

- ① 작가: 정철
- ② 기출: 2016 B 수능, 2015 B 수능, 2013 수능, 2015 9월 B, 2014 6월 A, 2013 6월, 2010 6월 평가원, 2016 3월 교육청, 2017 수능특강, 수능완성, 2018 수능특강, 2019 수능완성, 2020 수능특강

중요도	기출연도	작가	작품
★	16. 수능 B	정철	어와 동량재를 더리 호야 어이 홀고
★	15. 수능 B	정철	관동별곡
★	13. 수능	정철	성산별곡
☆	15. 09 B	정철	속미인곡
☆	14. 06 A	정철	속미인곡
☆	13. 06	정철	사미인곡
☆	10. 06	정철	관동별곡
☁	16. 03	정철	성산별곡

- ③ 수록 교과서: 비상, 금성, 미래엔, 지학, 천재(정), 두산, 신사고, 창비, 동아
- ④ 갈래: 고전시가, 가사(양반가사, 정격가사, 서정가사), 충신연주지사, 유배가사
- ⑤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 ⑥ 시적 상황: 임과의 이별
- ⑦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임과의 이별에 대해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애절한 그리움 표현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표현)
- ⑧ 주제: 연군지정(戀君之情)
- ⑨ 특징

- 여성의 목소리에 의탁해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임에 대한 사랑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충신연주지사
- 사계절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을 표현
- 유, 불, 선의 영향을 받았고 중심은 유교의 충(忠) 사상
-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가시문
- 다양한 비유와 상징
- 3·4조, 4·4조
- 의문형 어미
- 관념적(추상적) 화자
- 화자가 있는 화자
- 자연물을 이용한 비유

**현주간지 4월호 13주차**  
**55p 적중 !!**  
**EBS 비연계 작품도 적중 !!**

⑩ 해설 :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시(戀君之詞)의 대표적인 가사이다. 작가인 정철은 1585년(선조 18년)에 유배생활을 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계절이 변화해도 변함없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사미인곡」은 작가 정철이 이 작품의 후편으로 지은 「속미인곡」과 더불어 뛰어난 가사 문학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 문학중요도 A++ ★★★★★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현대시 시22~24번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A]

[B]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봉봉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들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태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구는 [B]의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 문학중요도 A++ ★★★★★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현주간지 6월호 23주차

작품 본문

#### 산상(山上)의 노래 - 조지훈

높디높은 산마루 반복, 강조

아주높음, 수직적 화자의 위치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비유

생명력을 상실한 존재(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상황) 움츠림없이 오래된 민족의 역사

내 홀로 간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올어 왔는가. 의문형 어미 사용, 나라 잃은 슬픔

조국의 광복, 희망, 조국광복의 염원, 광복에의 염원이 절실함을 강조함

⇒ 시대적 책무를 인식하는 지식자 품목

아아 이 아침 “간구”한 바가 이루어진 시간, 희망의 시간, 조국광복

“간구”하던 현실이 도래한 것에 대한 감격의 표출 영탄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비유, 상징

일제강점으로 인해 생명력이 훼손된 민족의 처지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추상의 구체화

민족구성원의 심장, 화자의 심장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청각적

부정적 현실의 해소 - 희망과 재생의 상징, 희망의 메시지

이제 눈

죽음

꽃다운

광복을 맞다

내 영혼의

내 영혼을 위

어둠 속에

일제의 억압 속

광복에의 염원

광복을 지켜주고 위로해주던 존재

환히 트이는 이마 우

광복으로 인한 변화된 세계(밝음, 시각적 상상)

떠오르는 햇살은 → 광복의 기운, 새로운 세상

간구하던 현실의 도래(상승이미지, 시각적 상상)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영탄, 비교 → 햇살이 비치는 아침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이다.

화자의 감격,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영탄적 표현)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 생명력, 민족적 생명력을 회복해가는 모습

일제강점으로 인해 생명력이 훼손된 민족의 처지, 힘겨운 육체, 피폐해진 국토

오래 잇었던 피리의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시 창작 등이 자유롭지 못하던 현실

가락을 더듬노니 → 여유를 찾음

공감각(청각의 촉각화)

1연: 광복을 염원한 화자의 간절함

현주간지 6월호 23주차  
45p 적중 !!

3연: 광복을 맞이한 민족의 현실

4연: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

5연: 회복되어 가는 민족의 정기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 문학중요도 A++ ★★

## 전우치전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갈래복합 41~45번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화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다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서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촌이요, 너비 삼 척 이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답]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오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답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회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답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답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답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애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답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풀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답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추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황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 했습니다.

**전우치:**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푹푹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어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들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퓌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 문학중요도 A++ ★★ 전우치전

## 현주간지 5월호 20주차

EBS 수록 본문

### 전우치전 - 작자 미상

여자가 정신을 차리자 까닭을 물으니, 그 여자 왈,  
 “아까 지나가던 중은 남편이 살았을 때 친하게  
 지내던 자라. 첩이 일찍이 홀로된 후 수절하며 지  
 냈더니, 오늘은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라. 그 중놈  
 이 와 달래면서 이르되, ‘우리 절에 가서 재를 올  
 리자’며 같이 가기를 간청하니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갔더라. 그런데 그놈이 영큼한 마음으로 이곳  
 에 와서 나를 겁탈하여 절개를 깨뜨리니, 살아서  
 쓸데없기로 자결하고자 한 것이라. → 혼자 살아가는 여인의 고충

우치는 그 여자를 위로하여 제집으로 보내고 다  
 시 산에 올라가니, 큰 암자가 있고 어제 보았던 중  
 늙이 거기에 있는지라. 우치가 가만히 진언을 외  
 우며 기운을 내 입김을 부니

“나이다.”  
 임금께서 크게 진노하시,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  
 지 못하시니, 도승지 왕연희가 아뢰어 왈,  
 “전우치의 환술은 예측하기 어렵사옵니다. 이번  
 에도 그럴 염려가 있사오니, 진짜 가짜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베어 버리는 것이 좋겠나이다.”  
 임금께서 이 말이 옳다고 여겨 십자각(十字閣)  
 에 자리하신 후 모든 전우치를 잡아들여 차례로  
 베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아가 아뢰되,

“신은 전우치가 아니라 도승지 왕연희로소이다.”  
 임금께서 보시니, 분명 왕연희

아 결...  
 중이 여인...  
 몸소 심문하고자 준비를 갖추게 하시더니, 승정원  
 에서 아뢰기를,  
**도술로써 약한 중을 징치하는 전우치**  
 “각 도와 읍에서 전우치를 잡아들인 것이 삼백  
 육십 명이오니, 이는 분명 전우치의 요술인가 하

이리로다.”  
 하시고 심문을 그치시니라.  
**전우치의 도술로 혼란스러워하는 임금**  
 우치는 구름 속에서 요술을 행하여 몸을 왕연희  
 로 바꾸고 꺾문을 나오니, 하인들이 마부와 말을  
 대령하였다가 피시어 왕연희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현주간지 5월호 20주차  
168p 적중 !!**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 문학중요도 A++ ★★ 전우치전

## 현주간지 5월호 20주차

### ✓ 지문 분석의 끝

- ① 작가 : 작자 미상
- ② 기출 : 2016 6월 B, 2008년 9월 평가원, 2013 10월 A, 2010 10월 교육청, 2020 수능특강

중요도	기출연도	작가	작품
★	16. 06 B	작자 미상	전우치전
★	08. 09	작자 미상	전우치전
♣	13. 10 A	작자 미상	전우치전
♣	10. 10	작자 미상	전우치전

- ③ 수록 교과서 : X
- ④ 갈래 : 고전 소설, 영웅 소설, 도술 소설, 사회 소설
- ⑤ 시점/성격 : 전지적 작가 시점 / 전기적(傳奇的), 영웅 이야기, 사회 비판적
- ⑥ 상황(배경/소재) : 조선 초, 송경, 한양 등의 조선
- ⑦ 인물의 반응/태도 : 온갖 도술을 통해 부패한 무리를 벌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준다.
- ⑧ 주제 : 전우치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백성을 위한 의로운 활약

#### ⑨ 특징

- 실제 인물의 내력이 전설을 거쳐 소설화
- 조정의 부패와 무능 등 모순된 사회 현실을 비판
- 다른 전기체 소설과는 달리 주인공의 가계나 출생, 자손에 대한 서술이 드러나지 않음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순차적 구성 방식
- 주인공의 인물됨과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
- 사건 전개 과정에서 분신술 등의 비현실적 요소 제시
- 조선 시대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던 사회적, 문화적 배경
- 영웅이 나타나 사회를 구제해 주려는 구조
- 문어체 표현
- 2인칭
- 전

현주간지 5월호 20주차  
168p 적중 !!

#### ⑩ 해설

「전우치」는 권력에 대한 저항과 백성을 위한 의로운 활약을 그려내고, 지배층에 맞서는 체제 저항적 영웅이면서,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영웅이기도 하다. 전우치는 영웅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신술, 분신술을 통한 도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도술은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과 맞물려 있고, 갈등이 첨예할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상의 평범한 존재는 할 수 없는 일을 주인공이 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제공한다.

#### <인물>

- 전우치 : 송경의 선비. 신선의 도를 익혀 부정한 관리나 약자를 괴롭히는 무리를 징벌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 줌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 문학중요도 A☆☆☆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현대소설 34~37번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그기 뭘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나 썩 몰러가고 토끼마 착 었디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말아 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우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㉕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 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엌에 밝아 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여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 께다. 니 가족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께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숙아”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 오자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짓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팔죽 할마이겘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㉖ (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주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토끼는 ㉗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어우 걸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떡두깨(떡두꺼비) 걸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 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다. 니가 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숙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절절매다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 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㉙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겨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 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니는 깨잖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막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맥힐 거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걸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왔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㉚ 우물로 달려갔다.

[A]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동네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B] 송편을 세 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세 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 문학중요도 A☆☆☆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밤길을 도와 백 리 길을 걸어서 어머니가 혼자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던 황만근은 평생을 좌우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군청이 있는 읍에서 신대리까지 오는 버스도 없었고 있다 해도 끊어질 시각이라 산길로 오는 게 빨랐는데 네 개의 봉우리를 돌거나 넘어야 했다. 그중 네 번째 고개의 이름은 토끼 고개였다. 황만근은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 들이기 위해 온 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밝아졌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에게 말했다. “네가 살았다. 너는 이 고개를 넘어야 한다. 황만근은 오기 싫었지만, 토끼의 강요로 풀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했다. 니 가족을 걱정하고 장갑을 할 수 없었다. 토끼는 팔을 빼겠느냐고 있는데 토끼는 대답하지 않는다. 토끼는 대답이 없다.”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98p 적중 !!**  
**EBS 수록 X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적중**

... 짐시손가락만 ... 무슨 불빛이 있어서 반짝이 ... 가까이 했느냐고. 초봄이라 토끼 고개에는 눈이 채 녹지 않고 있었다. 하다못해 별빛이라도.

“그기 뭘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 마 착 었디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고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말아 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수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

... 나무가 팔죽 할마이걸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쑤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쩌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걸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 이냐?”

“떡두깨(떡두꺼비) 걸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 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 속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 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찢절매다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 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 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 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 문학중요도 A☆☆☆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나는 께 않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녀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막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막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걸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났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내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만근뿐만 아니라 토끼도 둘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안간힘을 써야 했다.
- ② 황만근은 토끼가 남기고 간 털을 주워 와서 자기 이야기의 증거로 삼았다.
- ③ 황만근은 토끼의 위협에 겁이 났지만 오히려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했다.
- ④ 밤새 토끼와 대결한 황만근은 날이 밝을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⑤ 황만근은 토끼를 만난 일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

### 01 윗글의 내용

- ① 어리숙하고 화하고
- ② 서술자가 성석, 평가
- ③ 서술자가 관심을 높여
- ④ 이야기 내부를 면을 드러내
- ⑤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전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98p 적중 !!**

**EBS 수록 X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적중**

현대소설은 EBS에서 다뤘던 작품이지만 EBS에 수록된 부분이 아니라, 현주간지 11주차에 나온 파트가 전문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6월 모의평가>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담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구성진 입담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난다.

- ①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겠군.
②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③ 황만근이 '나는 인자 죽었다.'라고 발언하며 위협한 것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겠군.
④ '바보 자숙야'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⑤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라 할 수 있겠군.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토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설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비일상적인 체험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그것에 이야기 구조를 부여하는 성향이 있고, 이렇게 구조화된 이야기를 통해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다지며 개인의 경험과 정서를 집단 내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되고 공유된 설화는 사물이나 명칭의 기원, 행위 규범의 근거를 제시해 주며 집단의 결속을 강화한다. 구비 전승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설화는 그 과정에서 화소가 첨가되기도 하고, 전승자의 언어와 신념에 의해 재구성되기도 하는 등의 역동성을 갖는다.

- ① '황만근이 겪은 비일상적인 체험'과 토끼에 관한 구조화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서 토끼의 기원을 설명하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의문에서 이야기의 화소가 인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말이 황만근이라는 것은 본래의 이야기에 전승자의 언어가 더해졌음을 말해 주는군.
⑤ 황만근의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입을 통해 전파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군.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6모 37번 = 현주간지 4번
<보기> 제재 아이디어 동일

#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과거제 지문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16~21번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제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제출한

#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과거제 지문

## 현주간지 3월호 9주차 수특 독서 50p 지문 분석

### 토픽 배경지식

- ▶ 관학: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 ▶ 사학: 사학은 두 가지가 있다. '4'의 사학이 있고, 공과 사의 사학이 있다. 지문에서는 후자를 뜻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교육이다.
- ▶ 과거제: 유교경전을 이용하여 과거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암기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 ▶ 공거제: 조선시대의 교육 커리큘럼이다. 수도와 지방에서 명칭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동일했다.
- ▶ 균전제: 토지를 국유화(나라가 관리)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배분하는 것이다.

### 추가 읽기

#### 과거제의 문제점

현재 비슷한 제도로는 수능, 더 나아가서 학력고사가 있다. 수능과 같이 생각하는 시험이 아닌, 암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인품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또한, 암기시험인 만큼 모범답안 족보 등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에 그 의미가 변질되기도 하였다.

### 연계 토픽

**EBS 비문학 지문  
6모 변형 지점과  
동일하게 적중!**

- ▶ 지방과 이 연계
- ▶ 교육의 ... 사회지문
- ▶ ... 교육의 비대칭이 있었다. 대 ...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반면, 지방에서는 그런 교육 ... 이 자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공급자의 선택에 따른 공급의 차 ... 강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 고려시대의 ... 명재상 최충이 사학을 맨 처음에 설립했다. 사학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대부분 좋은 성과를 거두자 그 학생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려에서도 사교육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시 정부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만드는 등 관학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만들었다.
- ▶ 방향을 달리하여 지문에 제시된 내용의 전후 상황인 조선시대의 다른 교육제도(성균관)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사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도 연계될 수 있다. 당시 유명한 여러 유학자를 찾은 수많은 학생들이 모두 사학에 몰리며 관학이 점점 약해졌다.
- ▶ 또한, 교육이 아닌, 토지제도에 대해 연계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과전법과 직전법이 있다. 과전법은 전/현직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직 관리들이 너무 많아져 새로운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만들어졌다.
- ▶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일제강점기의 토지제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식민지적 토지소유의 기반을 다졌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제출한

#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지식 재산 보호 지문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31~32번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과제 :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 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 대비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낮춘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적용한 후,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 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 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3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연계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그기 뭐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나 썩 물러가고 토끼만 키우면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까?”

거대한 토끼는...

### EBS 비문학 지문

## 6모에서

# 법 지문을 경제적으로 변형

황만근은 토끼를 보자마자 겁을 썼다. 황만근을 겁주려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잡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엌에 밝아 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여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 끼다. 니 가족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끼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승이”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 오자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짓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팔죽 할마이걸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① (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주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제출한

#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지식 재산 보호 지문

## 현주간지 3월호 10주차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㉔ 부여하는 권리이다. 지적 재산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 분야의 디자인이나 발명, 상표에 대한 권리인 산업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 재산권 중 발명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발명에 부여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이 기술적 사상의 발명에 부여된다는 것은, 실제 물건으로 ㉕ 구현되지 않아도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적 공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에 대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은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부여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받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산업은 공업이나 제약업, 농수산업 같은 제품 생산업과 운송업이나 교통업 같은 보조 산업을 뜻하며, 의료업, 보험업, 금융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그 발명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는 선행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선행 기술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TV, 잡지, 논문,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수용자로 하는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선행 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결과에 비해 현저한 진보된 발명이 창출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발명과 같은 지적 생산물은 공공재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하나는 처음 생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인 배제 불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비경합성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그것을 생산·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㉖ 편승하여 소비하려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즉 일단 발명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지만 누군가 먼저 나서서 만들기는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런 재화는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생산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그것을 적절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 부여는 기술 진보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를 통해 발명을 촉진하여 ㉗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정부가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하여 일시적으로 독점 시장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업도 이 기술을 ㉘ 습득하여 경쟁자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특허권은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일정 기간만큼 연장하여 유지하게 해 준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시장 지배력을 가져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특허권 제도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발명품을 생산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기업을 고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고용은 사회적 비용이다.

**EBS 비문학 지문**  
**현주간지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해석**

뿐만 아니라, ...보다 진보된 발명이 많이 창출되 ... 유도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 하려는 것이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제출한

#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지식 재산 보호 지문

현주간지 3월호 10주차

**05** 뒷글의 ㉠,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술적 사상의 발명을 촉진하여 ㉠을 증가시키는 것도 특허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에 포함된다.
- ② 특허 제도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손실이라는 ㉡을 초래하기도 한다.
- ③ 특허 제도를 통해 기술적 사상의 발명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④ 특허권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진입 장벽 역할을 하여 기술의 개발이 지연되는 손실을 초래한다.
- ⑤ 특허 제도는 기술적 사상의 발명을 촉진하여 ㉠을 증가시키는 것도 특허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에 포함된다.

**07** a~e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그녀는 그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 ② b : 선배들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 ③ c :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 ④ d : 형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집 장사를 했다.
- ⑤ e : 그는 길에서 승객을 태우고 돌아왔다.

**'지문+문제' 출제 아이디어  
연계 변형 방식 적중 !!**

**06**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골라 짝 지은 것은?

• 보 기 •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 ㉠ )되는 수준에서 특허 기간을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특허 기간이 늘어나면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더 오래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발명을 촉진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반면 특허권을 얻기 위한 여러 기업들의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많아지고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도 커지므로 사회적 비용도 ( ㉡ )한다. 게다가 기술 확산의 저해로 인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므로 사회적 비용 증가세가 점차 ( ㉢ ).

	㉠	㉡	㉢
①	극대화	감소	완만해진다
②	최소화	증가	급격해진다
③	극대화	증가	급격해진다
④	극대화	증가	완만해진다
⑤	최소화	감소	급격해진다

(EBS 연계 대비 상상 변형 문제)